

시선

사설

대학원의 다양한 문제
교수사회의 거울이다

대학원은 각 학문 분과의 첨단(尖端)에서 이론과 현상을 정치(精緻)하게 탐구하며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최고 위 학술기관이다. 대학원은 크게 두 가지의 사회적 역할을 지닌다. ‘학술연구’와 ‘연구·전문인력의 양성’이 그것이다. 이 중 ‘학술연구’와 ‘연구인력의 양성’이 학계의 현재적·미래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갖는다면, ‘전문인력의 양성’은 현존하는 학술적 성과를 사회 일반에 유의미하게 적용·보급시킨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대학원의 사회적 역할은 ‘교수’의 사회적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교수들 역시 해당 학문분과의 첨단에 선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와 ‘인력양성’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원은 교수의 역량으로 채워지는 공간이며, 따라서 대학원은 전통적으로 교수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원이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사제관계’를 꼽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서양과 같은 교육조직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량 있는 교수와 그 문화에서 절차탁마하듯 헌신하는 박사과정생이 만나는 한국적 문화 관계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성장 동인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수가 중심이 되는 대학원의 구조적 특성은 매우 커다란 근본적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가령 역량 없는 교수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성과나 인력양성이 요원해진다든가, 사제 간의 불합리한 관계형성이 시스템적으로 통제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위와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불거진다 한들, 교수의 강력한 권한은 그 문제점들이 구성원에게 공유되는 것을 손쉽게 막아낼 수 있다, 조직 내에 어떤 증상이나 병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공론화된다는 것은 대학원 내의 권력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상술했듯, 대학원은 교수의 역량으로 채워지는 공간이고, 대학원은 전통적으로 교수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왔다. 바로 그렇기에 결국 한 대학의 대학원은 그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의 거울로서 기능한다. 연구성과가 뚜렷한 대학원은 학문에 매진하는 교수의 모습을 비추고, 많은 인제가 배출되는 대학원은 후학양성에 공들이는 교수의 모습을 투영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원의 낙후된 교육환경은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교수의 모습을 비추고, 폭력·차별·사적노동·저작권 편취 등 온갖 부조리 속에 신음하는 대학원생의 현실은 교수사회의 모럴해저드를 적나라하게 투영한다.

그렇기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곧 교수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주보가 이번 학기를 맞아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이런 이유 탓이다. 물론 연재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첫 기사를 위한 사전 취재과정에서도 ‘교수 입장에서 예민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부서에서 번번이 거절되곤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존하는 대학원 내의 문제를 이렇게 ‘인(人)의 장막’으로 가리는 것은 결국 생동하는 암세포를 엮는 셈 외면하는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약대 류종훈 교수,
의대 윤태영 교수 연구팀
정신분열증 원인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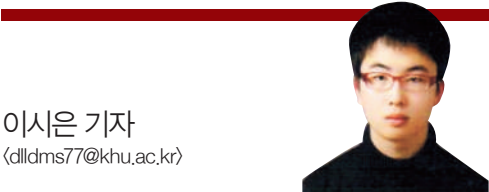
미디어 여론동향 2015. 2. 25~2. 2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명예퇴직’(# 경희숲_7293, 2015.2.25)에 관한 내용의 글이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은 220개의 ‘좋아요’와 5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글쓴이는 예상치 못한 인원감축으로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게 되어 앞으로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할 것 같으며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벗어나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힘들겠지만 멋진



서울캠 이과대학-국제캠 자연계열 다전공자 전공기초이수여부 논란
전공기초 통합 논의, 더 넓은 차원으로 고민해야



‘물리학 및 실험1’이라는 과목이 있다. 국제캠퍼스 자연계열 학생들 모두에게 친숙한 과목이다. 기자도 신입생 때 선배들이 골라준 첫 번째 과목이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 및 실험1’이라는 과목을 국제캠퍼스에서 이수한 학생이, 서울캠퍼스 이과대학의 학과로 다전공을 할 경우 다시 이과대학의 ‘물리학 및 실험1’을 수강해야 한다는 제보에 더 눈이 갔다. 제보 이후 다전공 학생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물리학 및 실험1’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학수번호가 다를 경우 모두 ‘다시’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실무부서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혼란에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공기초, 그 중에서도 과목 내 전공특수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될 여지가 생기는 순간 같은 말이 돌아왔다. “전공의 지향점이 다르면 아무리 유사한 과목이라도 다른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

물론 유사한 과목이라도,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학문적 지향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며 해당 과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연계열 다전공 학생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학문적 지향’이 개입하기 이전의 기초부분이다.

과목명도, 커리큘럼도, 교제도 같은데 ‘다른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특히 학과별 ‘특성’을 이야기한다면, 국제캠퍼스의 자연계열이 전공기초과목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설명할 근거도 약하다. 더불어 이과대학은 지난 2010년 ‘답 너머 세상’과 같이 융·복합이라는 학문적 발전방향을 주조한 단과대학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적인 과목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지향해온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단순히 서울캠퍼스 이과대학-국제캠퍼스 자연계열 다전공자의 문제로 판단한 일이 아니다. 유사과목에 대한 학수번호 통일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수강을 막고, 장기적으로 과대한 강좌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의 강좌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 ‘너무 많다’며 강좌수 축소를 추진하며, 대형강의의 수를 늘린 것에 비해 훨씬 교육여건에 바람직하기도 하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구성원간의 폭넓은 과목연구가 병행된다면, 현재 우리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역시 기초과목에 발목 잡히는 시간을 심화과정에서 쏟아, 보다 나은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0월 이과대학의 관련 논의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의 ‘답’을 주목하는 이유다.

아들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다.

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정상을 향한 혁신과 협력 - 위상과 책임행진”을 주제로 지난 달 4일 광릉캠퍼스에서 개최됐다.(2015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연계협력 성공 위한 행정 혁신 필요성 공유·방안 논의/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2.24) 우리학교는 3년 전부터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학내외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연계협력 추진해오고 있다. 대학 핵심가치 구현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온 결과, 위상이 높아졌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기업과의 관·산·학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번 연찬회에서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부속기관장 등 60여 명은 연계협력력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그 방안을 논의했다. 연찬회는 1부 안전 발표, 2부 분임 토의로 이어졌다.

국내연구진이 심각한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의 발생원인을 규명했다.(경희대 의료진, 정신분열증 발생원인 세계최초 규명/헤럴드경제, 2015.2.23) 우리학교 약

학대학 류종훈 교수와 의과대학 윤태영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3일 면역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톨-유사 수용체-2(Toll-like receptor-2)’가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적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지난 17일 게재됐다.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면역계와 정신계가 연결되어 있고, ‘톨-유사 수용체-2’가 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찾아냈다”며 “‘톨-유사 수용체-2’ 결손 동물을 이용한 새로운 정신질환 치료제 개발 방법 제시를 통해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소아치과 이은영 교수가 지난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5 스마일재단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강동경희대치과병원 이은영 교수, 복지부 장관 표창/쿠키뉴스, 2015.2.25) 이 교수는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나눔 실천을 통해 장애인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학을 둘러싼 이슈들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딱 1년 전 이맘때다.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쳐 사회에 적응할 새도 없이 갑박학을 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히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포스터를 보게 됐고, 그 길로 편집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후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처음 편집실에 들어섰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다. 나는 편집실이라는 공간은 항상 TV나 영화 속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재떨이에 담배는 수북히 쌓여있고 정돈되지 않은 온갖 자료와 종자들이 뒹굴어 대는 혼돈의 공간일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놀랍게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편집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은 그 때 그 깔끔했던 편집실의 모습이 세심히 연출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편집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얻고 ‘첫’ 세시봉을 쓰고 있다.

첫단추, 첫인상, 첫느낌, 첫눈, 첫만남, 첫사랑... 어떤 단어 앞에 ‘처음’을 뜻하는 ‘첫’이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단어가 주는 느낌이 확 달라진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주면서 동시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첫 세시봉’을 어떤 이슈에 대해 쓸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을 해봤다. 그러다보니 요즘 한창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차분리공사가 눈에 들어왔다.

이 공사는 SPACE21사업 및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전공사다. 돌아켜보면 내가 대학주보에 들어와서 ‘처음’ 쓴 기사가 바로 서울캠퍼스 대운동장 공공기숙사 관련 기사였다. 학교 측이 공공기숙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어 그 입장을 좀더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소득 없이 끝났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였다.

다른 기사거리를 다룰 때보다 공공기숙사 관련 기사를 다룰 때는 이상하게도 애착이 더 많이 갔던 것 같다. 의식적으로 공공기숙사 관련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했다. 임대업자들이 주장했던 ‘공실 대거 발생’을 반박하는 기사와 행정심판 기사 등은 내가 썼던 다른 기사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오늘도 등굣길에 보차분리공사현장 곁을 지나며 감회가 남달랐다. 편집장으로서 내는 첫 신문인 이번 호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내게 많은 기억과 추억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호를 만들면서 수십 차례 씩 살펴보고 다시보고 재검토했던 대학교 소개회, SPACE21 사업, 학사제도, 대학원 문제 등의 이슈들 역시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지 궁금하다. 바라건대 뿌듯한 기억으로,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산적한 이슈들을 심도있게 취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설렘과 긴장이 반반씩 섞인 마음으로, 첫 세시봉을 지면에 실어 보낸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